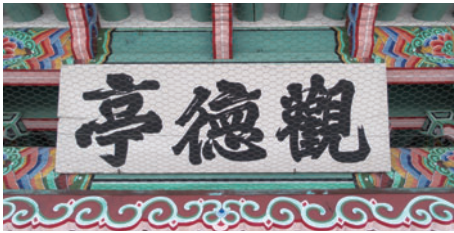


9. 관덕정(觀德亭) 액자 누구 것인가¹²⁾



관덕정 현판

관덕정(觀德亭) 현판 글씨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들에게는 이 글씨가 예부터 비해당 안평대군(匪懈¹³⁾堂 安平大君)의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어느 분은 이 글씨를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 대두되면서 도민들 가운데는 그 주장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은 최근에 간행된 『제주도의 문화재』까지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누구에게나 이 현판은 이산해의 글씨로 믿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2) 『한라일보』(삼각봉), 1998. 09. 24(목), 논설고문.

13) 신문에는 '해(懈)로 되어 있다. '해(懈)'로 바로 잡음.

이산해설(李山海說)의 대두

과연 이 글씨가 이산해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관덕정이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5백50년 동안 제주도민은 속아왔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산해가 죽은 뒤에까지 안평대군의 글씨라고 기록한 수많은 학자들은 무슨 꼴이 될 것인가. 참으로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먼저 어느 분이 주장하는 근거부터 보기로 하자. 그것은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이다. 남사록을 보면 신석조(辛碩祖)의 「관덕정기(觀德亭記)」를 인용해 놓고 거기에 자신의 주기(註記)를 덧붙여 놓고 있다. ‘비해당의 액자는 화재로 없어지고 지금 걸려 있는 것은 아계의 필적이다.’라는 것이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이산해의 글씨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주기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 비해당의 액자가 불에 탔다고 했는데 관덕정은 1448년(세종 30) 창건된 이래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누가 이 현판을 합부로 불에 태울 수도 없고 그런 근거도 없다. 화재로 현판이 소실됐다는 것은 순전히 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관덕정 화재 근거 없어

다음으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602년(선조 35) 남사록이 세상에 나온 다음 이 현판을 언급한 학자들의 동향이다. 1653년(효종 4)

에 간행된 태호 이원진(太湖 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를 비롯하여 병와 이형상(瓶窩 李衡祥), 응와 이원조(凝窩 李源祚), 심재 김석익(心齋 金錫翼), 이용호(李膺鎬), 김문희(金汶熙), 김범준(金範峻) 등의 역사나 지지 등 모두가 여전히 안평대군의 글씨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디에서도 이산해의 액자로 바꾸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 관한 기록을 남긴 임홍망(任弘望), 김춘택(金春澤), 남구명(南九明), 임징하(任徵夏), 조관빈(趙觀彬), 김정(金), 신광수(申光洙), 조영순(趙榮順), 조정철(趙貞喆), 김정희(金正喜), 최익현(崔益鉉), 김윤식(金允植) 등 수많은 학자들의 문집에서조차 이 같은 논급은 단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남사록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들 학자들이 만약 안평대군의 액자가 소실되고 대신 이산해의 액자로 개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한 마디 짚은 언급할 만한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일은 남사록의 내용과 집필 배경이다. 남사록은 쉽게 말하면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한 이야기이며 검증을 거칠 필요조차 없었다. 그동안 제주도를 소재로 한 수많은 기행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권위 있는 대가들의 글에서도 많은 오류를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풍부한 정보자료 속에서도 그 같은 착오가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약 4백 년 전의 전문기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청음 김상헌(淸陰 金尙憲)이 제주도를 다녀간 것은 목사나 수령처럼 일정 기간 상주한 것이 아니었다. 제주에서 반란 음모 사건이 발생하여 어사(御史)로서 위무(慰撫)할 한시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는 1601년(선조 34) 9월말에 입도하여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체재했

다. 그러나 그는 들어올 때도 풍파로 고생하였지만 떠날 때도 바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 대부분을 조천관에서 후풍(候風)으로 보냈다. 그의 기억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완벽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일이다.

도내의 저명한 현판 가운데 이산해의 글씨는 운주당(運籌堂) 현판이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현판은 뒤에 운주당의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물론 안평대군의 액자라 할지라도 그때의 글씨 그대로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현판의 경우도 훼손되거나 보존 상태가 나쁠 때는 탑서(搨書)하거나 모사(模寫) 보완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현판을 개편한 확실한 전거가 구명되지 않는 이상 선불리 원전을 뒤집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위험한 주장 삼가야

어떤 주장을 하는 데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어떤 기록 한 구절을 보고 그에 따른 검증도 없이 그대로 단정해 버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남사록이 나온 뒤에 까지 많은 학자들이 안평대군의 글씨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반론 한 마디 없이 이산해의 글씨로 단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역사의 진실을 그르치고 도민의 인식을 그르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며 자숙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